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2024년 세계 도시 시장 신년사(주요 내용) - 유럽

- 파리** - '친환경 올림픽' 도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 로마** - 과거의 영광 뒤로하고 미래 지향적 도시로 거듭날 것
- 밀라노** - 이민자나 관광객보다 시민을 우선시하는 도시
- 피렌체** - 15분 내 생활 서비스 누리는 공공도시 실현
- 암스테르담** - 사회의 진보와 발전은 자긍심에서 출발

- 마드리드** - 새로운 녹지 조성하고 주택 공급 늘릴 것
- 바르셀로나** - 대규모 공공 투자로 획기적인 도시 청사진 제시
- 빈** - 사회적 협력과 민주주의에 강한 빈
- 베를린** - 도시의 결속력에 대한 요청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u>미국</u>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u>캐나다</u>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u>케냐</u>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u>오스트레일리아</u>	
시드니	황현정

〈아시아〉	
<u>말레이시아</u>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u>싱가포르</u>	
싱가포르	이지은
<u>인도</u>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u>인도네시아</u>	
자카르타	박재현
<u>일본</u>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u>중국</u>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u>네덜란드</u>	
암스테르담	장한빛
<u>독일</u>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u>스페인</u>	
바르셀로나	진광선
<u>이탈리아</u>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u>프랑스</u>	
파리	김나래
	정연주

‘친환경 올림픽’ 도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프랑스 파리 / 안 이달고 시장 / 신년사

파리의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은 센강 변에서 열리는 특별한 올림픽에 대한 큰 기대와 함께 전쟁으로 희생되는 민간인들을 비롯하여 박해받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여성 등을 위로하는 말로 2024년 신년사를 발표. 친환경 올림픽을 지향하는 파리는 이를 위한 사회연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 기후 변화 대처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후와 환경, 생물 다양성 등을 주제로 미래 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이 발표한 2024 신년사 내용

- 친환경 올림픽은 시민의 삶에 지속해서 큰 영향
 - 2024년 파리 올림픽은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여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행사로 런던 올림픽에 비해 탄소 사용량이 55% 감소할 것임. 기존 시설과 신축 건물의 95%를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건축 공사 진행
 - 올림픽 선수촌을 친환경 건축으로 설계했으며 주변에 나무를 9,000그루 심을 예정
 -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선수촌을 6,000명 수용 가능한 주거지로 활용할 계획
 - 수영할 수 있는 깨끗한 센 강 실현
 - 5구의 퐁투아즈 수영장, 16구 피에르 드 쿠베르탱 체육관, 17구의 막스 루시에 경기장, 18구의 푸아소니에와 도뱅 스포츠센터, 20구의 조르주 발레리 수영장 등의 옛 시설을 개조해 이번 올림픽 시설로 재활용
- 사회연대와 생활환경 개선
 - 올림픽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개선을 진행
 -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공공시설과 상점에 쉽게 접근하도록 파리 전역의 1,775개 버스 정류장과 도로 개선
 - 파리 11개의 주요 인문 사회학 대학들이 모인 콘도르세 캠퍼스(Campus Condorcet) 계획은 대학 건물, 부지 인근 산책로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 도시 재생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별로 폐건물을 활용해 노숙자와 난민 수용시설을 3,000개 확충할 계획

- 공교육 위기와 대처
 - 2023년 180개, 2024년에는 150개의 초등학교 학급이 폐쇄될 예정으로 공교육 위기 상황이라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파리는 프랑스 전역에서 학교급식의 유기농 식품 비율이 제일 높으며, 이 비율을 더 높이려 노력 중
- 의료 불평등 해결과 에이즈 대응
 - 2024년에 기존 공공의료센터에 의료 전문가 115명을 새로 채용하고, 2026년까지 공공 보건에서 제외되었던 어린이 및 청소년 정신 건강과 관련한 의료센터 4개 신설
 - 2014년 파리 선언에 이어 올해 12월에 에이즈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역 대표들의 모임이 예정됨
- 주택 공급과 높은 임대료 신고 정책
 - 파리지 최우선 과제로 올해 새 주택을 3,000채 공급할 계획
 - 임대료가 높으면 시에 신고하고 시에서 임대인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알리는 정책 유지
 - 작년에 4,000건의 계약을 성사한 주택 보험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
- 기후 변화 대처와 삶의 질 향상
 - 2014년부터 100억 유로를 투자해 기후 변화에 대처했으며, 올해 8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
 - 생물 기후 도시 계획, 기후 계획, 환경 건강 계획, 그리고 생물 다양성 계획의 네 가지 주요 미래 사업을 설정
 - <50° 기온 속 파리>라는 위기 대응 훈련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 대책 강구
 - 2월에 시민 투표로 SUV 차량의 주차 요금 3배 인상안이 통과됨
 - 트램의 서쪽 지역 연장, 지하철 11호와 14호선 연장 예정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도심 차량 통행 제한 구역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몽마르뜨, 생마르탱 운하, 알렉산드라 거리, 오베르캄프 거리에 보행자 전용 구역 (Zone à trafic limité, ZTL) 조성
 - 도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샤펀레 광장을 다시 살리고, 앞으로 콩코르드 광장, 트로카데로, 이에나 광장을 재정비할 계획
 - 외곽 순환도로에 카풀 전용 차선을 만들고, 도시 공해에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도시 고속도로 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할 예정
 - 파리 시내 학교의 절반 이상인 200여 개 학교의 통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32개의 새 학교 보행로와 38개의 오아시스 쉼터를 조성할 계획

- 1,300km의 기존 자전거 거리에 더해 44km의 새 자전거 도로 신설
- 2020년부터 10만 그루의 나무 심기 계획을 실현했으며, 특히 블로뉴 숲 끝에 있는 뽀뜨 마이요, 12구의 사라 모노 광장 지역은 구체적인 성과가 돋보임
- 샤론느와 카타론뉴 광장의 예처럼 시청 앞마당과 코로넬 파비앙 광장에 도시숲을 조성
- 산책할 수 있는 도시 쉼터로 재탄생하기 위해, 12구 드베르그, 17구의 파로디 광장, 14구의 안나 마를리 공원과 물랭 드 라 비에르 광장, 18구의 생트 헬렌 광장 등을 개보수하거나 확장할 예정
- 20구의 파이톤 뒤베르누아 지역에 스포츠 시설과 보건 센터를 짓고 대형 공원을 새롭게 조성
- 5,000여 채의 주거지를 재건축할 예정이며, ‘본인 부담금 제로(zéro reste à charge)’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공사 지원
-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스포츠 시설과 수영장을 재건축하고, 2050년까지 파리의 모든 학교와 어린이집을 보수 공사할 계획
- 공동주택에 지붕 개조와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
 - 설치 공사로 파리시에서 10%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사회적 경제를 실천함
-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가정 폭력 대처
 -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청 혹은 발라동 고등학교에 여성 쉼터 설치
 - 가정 폭력과 학대, 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4년까지 모든 파리 경찰서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경찰관 대기
 - 2023년에 파리 중심지에 성소수자 센터(la Bulle Malher)를 개장함
- 국가 유산의 보존
 - 거리의 작은 식당(bistrot), 카페, 장인, 그리고 미식 문화 등을 보존하기 위해 3월에 ‘웨이터와 웨이트리스 달리기 대회(la course des serveuses et des serveurs de café)’를 개최
 - 노트르담 성당 복원 공사 마무리와 주변 지역 재개발
 - 마들렌 성당 복원
- 깨끗한 거리를 위한 노력
 - 파리의 모든 구내식당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3분 거리에 수거함(365 stations Trilib) 설치
 -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며, 시의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이 연료를 사용하는 순환 경제 체제 구축

- 민주적 토의를 위한 ‘화합의 극장’ 계획과 시민 투표
 - 소셜 네트워크의 병폐와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민주적인 방식의 정치적 토론을 위해 콩코르드 광장 근처에 ‘화합의 극장(Théâtre de la Concorde)’을 마련할 계획
 - 예비 뽑기로 선발된 100명의 파리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의회가 토론 및 제안을 하는 공간으로, 내년 봄 파리 시의회 투표로 설립 여부 결정 예정
 -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본 도시’를 주제로 시민 대화 및 투표, SUV 차량 제한 관련 시민 투표 시행으로 민주정치 실현

시사점

- 올림픽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도 이 기간에 파리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파리 시민의 교통과 안전에 관한 우려를 잘 파악함
- 올림픽을 계기로 삼아 다년간의 계획을 통해 환경 친화 도시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파리 시장의 의지가 돋보임
- 시의 정책에 시민 투표를 하는 의도는 좋으나 참여 비율이 높지 않아 이 방식이 파리 시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현하는 목소리도 있음

<https://cdn.paris.fr/presse/2024/01/10/4a6d0594dfaac78a8af407244650ad8f.pdf>

<https://mesinfos.fr/75000-paris/anne-hidalgo-presente-ses-voeux-olympiques-pour-2024-190888.html>

<https://www.20minutes.fr/paris/4084064-20240330-anne-hidalgo-mairie-paris-voici-bilan-presque-objectif-10-ans>

<https://www.tf1info.fr/jeux-olympiques/jo-paris-2024-l-appel-de-la-maire-anne-hidalgo-aux-parisiens-tes-ntes-de-fuir-la-capitale-pendant-les-jeux-olympiques-ne-partez-pas-2285845.html>

김 나 래 통신원, kim.narae@kakao.com

과거의 영광 뒤로하고 미래 지향적 도시로 거듭날 것

이탈리아 로마 /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시장 / 신년사

로마의 2024년 핵심 키워드는 ‘변화’임. 부임 2년 차인 로베르토 구알티에리(Roberto Gualtieri) 시장은 지속 가능성, 혁신, 다문화 포용이라는 가치로 새로운 로마를 창조하고자 함. 과거의 영광에 머물던 침체기에서 벗어나 뚜렷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사회 인프라를 재점검하여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거듭나고자 함

오랜 경제적 정체기 후에 새로운 도약

- 약 20년간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려는 로마의 새로운 움직임
 - 로마는 세계의 문화유산 도시이지만 그 타이틀에 가려 ‘경제 성장, 혁신, 변화’와는 거리가 먼 도시가 되어 버림
 - 2021년에 당선된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시장은 이전 시장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임
 - 과거의 로마시가 전통 유지, 문화 보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주로 펼쳤다면, 구알티에리 시장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을 보완하여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함
 - 2023년의 키워드는 ‘다시 시작하는 로마’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2024년의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과 다문화를 포용한 변화’로 로마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을 약속
 -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및 서비스가 강화되고 조화된 도시 만들어 나갈 것
 - 장기적 안목으로 15-20년 후 로마의 미래를 구상
 - 추후 새롭게 당선되는 시장에 관계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직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구상
- 최근 로마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 조짐이 보임
 - 현재 로마의 경제 성장률은 이탈리아 도시 평균을 넘어섰으며 로마시에 대한 중앙 정부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음
 - 로마 은행에 따르면, 2022년에 비해 2023년 로마시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140% 증가했으며 이는 이탈리아 도시 중 가장 높은 투자 유치 비율을 보임
 - 경제 성장 없이 좋은 일자리와 높은 삶의 질을 논할 수 없음을 강조. 지속 가능하고 사회 불평등을 좁히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만 성장이 의미가 있기에 모두를 위한 경제 성장을 추구

- 전문가들은 시의 경제 정책과 함께 로마의 역사와 문화 자원, 대학들의 연구 성과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날로그 도시답게 디지털 분야의 발전이 더디지만 최근 디지털 사업에 대한 투자 상승과 다양한 사회적 벤처들의 탄생이 고무적인 현상. 젊은 층과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

- 65억 유로(약 9조 원)를 투자하여 대중교통 메트로 완공 및 연장
 - 2030년까지 로마시의 메트로 A·B라인 연장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며, 새로운 노선인 C·D라인 시공 예정
 - 2009년에 중단된 메트로 A라인의 승강장 보수 공사는 올해 초에 완공
 - 메트로 A라인의 야간 운행 시작
 - 올해 말까지 메트로 역사의 엘리베이터, 계단 보수 공사를 95% 마치는 것과 무료 와이파이 설치하는 것이 목표
- 역사적인 도시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로마의 대중교통 개선은 항상 답보 상태였으나 시민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큰 결단
 - 역사지구를 보존하는 동시에 중앙과 외곽의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트램, 버스, 메트로 노선 신설 및 개선
-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거주지 밀집 지역 제한 속도 낮추는 정책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6년까지 모든 인구 밀집 지역과 거주지역 내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30km로 정할 것
 - 야간 고속 운행 절대 금지할 것
- 작년부터 도시 내의 수많은 공사 현장 때문에 교통 혼잡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더 나은 로마를 위한 과정이라고 설득하며 시민에게 이해와 인내를 당부

<https://romamobilita.it/it/media/pp/secondo-rapporto-alla-citt-parola-chiave-trasformazione>

<https://www.comune.roma.it/web/it/notizia.page?contentId=NWS1164463>

<https://www.romatoday.it/politica/gualtieri-secondo-rapporto-citta-2023.html>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이민자나 관광객보다 시민을 우선시하는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 / 주세페 살라 / 신년사

밀라노의 주세페 살라(Giuseppe Sala) 시장은 밀라노시의 2024년은 마주한 큰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해가 될 것임을 강조. 이민자와 난민들의 유입으로 분위기가 불안정해진 도시를 안정화하고 관광산업의 무분별한 유행으로 위기를 맞은 시민들을 위해 거주 환경을 회복하는 것으로 위기를 해결해 나가며 더 나은 밀라노로 거듭날 것이라고 발표

도시 안전과 치안 유지에 초점

- 이민자와 난민 유입으로 도시의 안전 문제 대두
 - 외국인들의 절도, 범죄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과 고통 호소
 - 이민자 유입 전, 밀라노시 하루 평균 13건이었던 범죄가 최근 수백 건으로 급증
 - 매년 높은 '삶의 질 만족도'를 유지하던 밀라노시는 작년 조사 결과, '도시의 치안과 안전' 부문에서 이탈리아 도시 중 최하위에 머무름
- 도시의 분위기 안정화에 모든 역량 쏟아부을 것
 - 올해 도시의 치안 유지에 660만 유로(약 100억 원) 투자
 -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잠정적 범죄 지역에 최소 150명의 군인 투입. 경찰과 합동으로 치안 유지에 초점 맞출 것
 - 밤낮 순찰 인력 늘릴 것.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밤에 순찰 인력 보충
 - 현재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임을 강조
 - 도시의 치안 안정화 후에 이민자 관리와 통합을 위한 정책 펼쳐 나갈 것

관광객을 위한 단기임대 강력 제재하여 시민을 위한 도시 되찾을 것

- 에어비앤비(관광객을 위한 단기 임대)가 유행하면서 일반 주택과 아파트가 관광객을 위한 곳으로 변하고 있음
 - 시민들을 위한 집은 줄어들고, 월세가 터무니없이 높아져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
 - 대학 근처에 학생들 거주를 위한 집들도 에어비앤비의 타깃이 되면서 현지 학생들의 시위가 밀라노 전역에 퍼짐

- 관광산업 성장의 그늘 속에서 시민들 삶의 질 저하
 - 2023년 7월 밀라노의 관광객은 2019년 7월에 비해 30% 증가. 이미 관광도시로 유명한데 관광객이 더 몰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
 -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관광객을 위한 단기 임대 공간으로 변해 가는 문제 발생
 -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개인의 자유에는 강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밀라노시의 입장
 - 제재를 위한 다양한 법안 마련 중이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촉구
- 밀라노 시장은 올해부터 강력하게 에어비앤비 혹은 그와 같은 플랫폼의 확장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
 - 뉴욕,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의 선례를 따라 단기 투숙 플랫폼을 엄격하게 제재할 것을 발표
 - 주택 환경이 안정되기까지는 장기전을 치러야 함을 인정하고 월세를 시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사회주택 건설과 대학교 기숙사를 신설할 예정

<https://www.radiolombardia.it/2024/01/25/sala-in-arrivo-a-milano-oltre-6-milioni-di-euro-per-la-sicurezza/>

<https://www.ilgiornale.it/news/sicurezza-milano-ultima-ditalia-tiene-primato-business-2251234.html>

<https://www.ilgiorno.it/milano/cronaca/ilaria-lamera-studentessa-tenda-protesta-mggpb9s5?live>

https://www.affaritaliani.it/milano/sala-affitti-problema-vero-lotta-a-chi-ha-razziato-gli-appartamenti-874433.html?refresh_ce

<https://www.milanotoday.it/attualita/airbnb-affitti-brevi-sala.html>

https://www.travelquotidiano.com/enti_istituzioni_e_territorio/sala-ridurre-gli-affitti-brevi/tqid-451777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15분 내 생활 서비스 누리는 공공도시 실현

이탈리아 피렌체 / 다리오 나르델라 시장 / 신년사

피렌체의 다리오 나르델라(Dario Nardella) 시장은 시민 모두를 위한 이상적인 공공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2024년의 목표라고 강조. 사회기반시설 확장은 물론 거주 구역에 상관 없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시 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피렌체의 올해 추진 정책. 도시 내 신속한 생활 서비스를 충족하며 시민들의 건강에 민감한 도시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발표

사회기반시설 충족하여 이상적인 공공도시 실현

-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
 - 거주 구역에 상관 없이 도시 내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피렌체 내 다섯 구역 구석구석 트램 정류장 설치
 - 도시 중앙뿐 아니라 외곽 전원까지 트램 설치를 완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움
 - 문화재를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역사지구 내에도 트램 정류소를 설치하여 도시 외곽 거주자들이 중앙으로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시의 배려
 - 도시 주요 구역마다 대형 지하 주차장 신설
 - 자차로 이동하는 전원 거주 시민들을 위한 시의 정책으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트램 환승 장려
-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 보완
 - 도시 구역마다 최소 10개의 녹색 공간 신설
 - 유치원, 어린이집 신설
 - 과거 수도원 등 버려진 공간을 탈바꿈하여 공원 및 스포츠, 문화 공간으로 개조

도시 내 생활 서비스 근접성을 높여 삶의 질 높임

- 걸어서 15분 내 생활 서비스
 - 피렌체시는 걸어서 15분 내 생활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음
 -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인 광장을 포함하여, 공원, 학교, 병원, 도서관, 은행, 슈퍼마켓, 스포츠 시설 등 필수 서비스를 걸어서 15분 내 이용할 수 있도록 실현 중
 - 시민들의 서비스 근접성을 실현하는 것은 현재 피렌체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거주지 근처에서 복지가 충족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짐
- 현재 피렌체시의 어린이 약 63%가 걸어서 15분 이하 거리인 거주지 반경 500m 내에서 등하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올해 말까지 모든 어린이가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피렌체 시민의 약 80%가 거주지 반경 500m 안에 녹색 공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올해 30개의 새로운 공원과 녹지 공간을 만들어 시민 모두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자연을 경험할 수 있을 것
- 10개의 새로운 스포츠센터를 설계하여 올해 말까지 시민의 약 50%가 15분 거리의 스포츠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

시민의 웰빙지수 높이는 건강한 도시

-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기찬 도시 만들 것
 - 시민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도시의 요소들, 즉 대기, 소음, 향, 시각적 조화 등에 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건강 도시로서 다양한 정책 만들어 나감
 - 도시 내에 다양한 문화 활동을 기획하여 시민이 정서적, 신체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도시의 외곽 구역에 세심한 주의 기울여 시민의 일상생활의 질 높이는 정책
 -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장려하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 완공
 - 시민의 정서적인 건강을 위한 도시의 공공예술 지원 및 장려

<https://www.comune.fi.it/comunicati-stampa/piano-operativo-la-relazione-del-sindaco-nardella>

<https://www.comune.fi.it/dalle-redazioni/gli-auguri-del-sindaco-alla-citta-0>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사회의 진보와 발전은 자긍심에서 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펴케 할세마 시장 / 신년사

암스테르담 펴케 할세마(Femke Halsema) 시장은 도시가 마주한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적 낙관이 필요함을 강조. 포용도시인 암스테르담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웃과 주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고대한다고 밝힘

사회 전반에 깔린 무력감 극복 위해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 돌아볼 것

-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많았음
- 당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값진 자산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
 -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정책은 네덜란드 사회가 가진 중요한 자산
 - 경제적 규모에 비해 비교적 적은 소득 격차, 언론의 독립성과 신뢰도, 표현의 자유 역시 자랑스러운 가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과제 해결 위해 낙관적으로 연대할 것

- 전쟁과 빈곤, 주거 부족, 기후 위기 등 공동체로서 함께 대응해야 하는 주요 과제들이 산적함
 - 네덜란드와 암스테르담은 역사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에도 시련을 연대의 힘으로 극복해 낸 바 있음
- 우울과 비관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와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지켜 내는 것이 중요
 - 우울은 진보로 이어지지 않으며 비관은 무관심한 시민을 낳을 뿐임
 - 당면해 있는 난제들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낙관이 필요

자긍심 가지고 이웃과 주변을 포용할 것

- 암스테르담은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이들이 없는, 모두를 위한 도시
 - 역사적으로 암스테르담은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음

- 이웃과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며 서로의 그늘을 밝혀 주기 바람
- 필요에 따라 논쟁도 두려워하지 않되,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사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민적 교양에서부터 사회는 진보해 나갈 수 있음

<https://www.parool.nl/es-b84d5438>

장한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새로운 녹지 조성하고 주택 공급 늘릴 것

스페인 마드리드 /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 알메이다 시장 / 신년사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한 마드리드의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 알메이다(José Luis Martínez-Almeida) 시장은 신년사에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주요 도시 계획 프로젝트와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하였고, 마드리드의 대기질이 2년 연속 유럽 기준을 준수한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마드리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발표

주요 도시 계획 프로젝트

- A-5 고속도로를 덮어 새로운 녹지 공간 형성
 - 마드리드 남쪽을 지나는 A-5 고속도로는 인접한 바탄 지역과 캄파멘토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여 이 고속도로를 덮는 공사를 18년 동안 추진
 - 알메이다 시장은 A-5 고속도로를 덮는 공사를 위해 총 700만 유로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 고속도로를 덮는 공사를 실행하여 그 위에 마드리드 남서쪽 산책로(Paseo Verde del Suroeste)라는 새로운 녹지를 조성할 계획
 - 이 산책로는 3.5km 길이의 산책로로, 2만 5,000톤의 강철로 이루어진 보행자 전용 녹지 공간과 생활 공간, 놀이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 그 아래에는 A-5 고속도로의 6개 차선이 순환하고, 그중 4개 차선은 개인 차량용으로, 나머지 2개는 대중교통용으로 사용할 예정. 또한 2,884m 길이의 새로운 양방향 자전거 도로도 조성할 계획
- 마드리드 북부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
 - 마드리드의 까스떼야노(Castellano) 지역 도로를 지하로 매립하여 지상 공간을 보행자 위주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주택 문제

- 민간 기업 주도의 주택 공급
 - 알메이다 시장은 민간 기업의 주도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찬성
 - 마드리드 누에보 노르떼(Madrid Nuevo Norte) 프로젝트, 카라반첼 교도소(Carabanchel Prison) 프로젝트, 라 솔라나 데 발데베바스(La Solana de Valdebebas) 프로젝트 등 현재 진행 중인 12개 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된 20만 4,000채의 주택에 추가로 1만 2,000채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민간 기업에 2억 1,500만 유로가 할당될 예정

- 마드리드의 라티나(Latina) 지역에 위치한 옛 군사 주둔지
 - 라티나 지역에 위치한 옛 군사 주둔지에 1만 2,000채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인 ‘오퍼레이션 캠프(Operation Camp)’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주택부와 마드리드 시의회 사이의 회담을 시작하여 프로젝트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
- 주택 정비 계획
 - 앞으로 12개월 동안 도시 정비 측면에서 마드리드의 전환 전략에 포함될 계획들(Plan Adapta, Plan Rehabilita, Plan Transforma Tu Barrio)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이 계획들을 통해 2만 2,000채 이상의 주택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해 5,000만 유로의 예산이 할당
- 무면허 관광 숙박 업소 단속 규제 강화
 - 에어비앤비 인사이드 플랫폼에 따르면, 마드리드에 있는 관광 숙박업소 형태의 아파트 1만 5,624개 중 628개의 숙박업소만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러한 불법 행위는 지역 주택의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숙박업계의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며,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

대기 오염

- 대기질 준수 유지
 - 마드리드 중심부의 대기오염 관련한 마드리드 시의회의 환경 정책이 미온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드리드는 2023년까지 2년 연속으로 유럽 연합이 정한 대기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2024년에도 대기질 준수를 유지함으로써 3년 연속 마드리드 중심부의 대기질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4년의 과제는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마드리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https://www.20minutos.es/noticia/5200956/0/propositos-almeida-para-2024-liderar-resistencia-sanchez-e-squivar-las-polemicas-poner-primera-piedra-5/>

https://www.eldebate.com/espana/madrid/capital/20240105/objetivos-almeida-2024-control-pisos-turisticos-soterramientos-m30-5_164790.html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대규모 공공 투자로 획기적인 도시 청사진 제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 자우마 콜보니 시장 / 신년사

2024년 2월 29일, 바르셀로나 언론인협회(Colegio de Periodistas)가 해마다 주최하는 바르셀로나 시장의 신년사 발표 행사인 '알칼데 레스폰(L'alcalde respon)'에서 2023년 6월 바르셀로나 시장으로 선출된 자우마 콜보니(Jaume Colboni) 시장은 임기 첫 몇 달 동안의 성과를 검토하고 앞으로 바르셀로나의 도시 개발 청사진과 이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

자우마 콜보니 시장 임기 초반의 성과 검토

- 공공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한 긍정적인 도시 분위기 회복
 - 도시 공공 공간의 우수성 회복을 위한 도시 재정비 계획인 '엔드레짜 계획(Pla Endreça)' 진행
 -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시설의 생태학적 전환 계획인 '끌리마 에스콜라 계획(Pla Clima Escola Barcelona)' 진행
 - 공공 소유의 27개 부지에 최소 1,700개의 사회 주택 (vivienda social)을 건설하기 위한 '카탈루냐 국토연구소(Incasòl, Institut Català del Sòl)'와 계약
 - 5,000개의 공공주택 건설
 - 도시 내 소외 지역에 11개의 새로운 보건소(CAP, centres d'atenció primària) 추가 개설 추진
 -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 론다 데 달트(Ronda de Dalt) 순환도로를 지붕으로 덮는 공사를 위한 협약 체결
 - 람블라 거리(La Rambla) 개선 가속화와 라예타나 거리(Via Lletana) 개선 추진
- 국제 사회의 시범적 도시로서 바르셀로나의 입지 회복
 -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2024 성공리에 개최
 - ISE(Integrated System Europe) 2024 행사 성공리에 개최
 - 바르셀로나의 빛 축제(LLUM BCN)와 느와르 문학을 주제로 한 축제(BCNegra)를 성공리에 개최
 - 세계적인 규모의 바이오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사의 연구개발 분야 허브를 바르셀로나의 에스텔(Estel) 건물에 유치한다는 발표

역사적 규모의 도시 변화 청사진 제시

○ 목적과 규모

- 바르셀로나에서 앞으로 12년 동안 진행될 해당 계획의 목적은 새로운 도심 형성, 지식과 과학을 원동력으로 하는 도시와 사회 변혁, 대중교통과 도심 대로를 중추적 요소로 하는 도시 확장을 통해 현재의 도시 외곽지역을 바르셀로나 도시에 통합하여 인구 550만의 대도시 형성
- 해당 계획을 위해 2035년까지 106억 유로 이상의 공공 투자를 예상, 도시 면적 550만㎡(바르셀로나 에이샴플레(Eixample) 지역의 3/4에 해당)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약 17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예상
- 바르셀로나 및 대도시권 개발 계획은 인프라 및 지속 가능한 이동성, 지역 경제의 성장 지역 개발, 재능과 과학, 건강, 스포츠, 문화 등 6개 축으로 구성

○ 첫 번째 축: 인프라 및 지속 가능한 이동성

-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을 도시에 통합하기 위한 지하철 네트워크 개선
- 바르셀로나 북부에 새로 건설되는 새로운 중심 기차역 사그레라(Sagrera)역 주변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도시 개발
- 스페인 철도공사 아디프(Adif)가 주도하는 바르셀로나의 기존 중심 기차역 산츠(Sants)와 주변 지역에 대한 리모델링 프로젝트
- 바르셀로나 항구에 하루 2,300대씩 접근하는 트럭의 수를 줄이기 위한 항구에 대한 철도의 통합 및 접근성 개선

○ 두 번째 축: 지역 경제의 성장 지역 개발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의 4개 지역

- 피라 몬주익-그랑비아 지역(Fira Montjuic - Gran Via : Fira Barcelona): 컨벤션 센터의 확장 공사와 개조 공사, 올림픽 시설들을 중심으로 한 몬주익 언덕의 변화 및 이러한 변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하철 노선 확장
- 22@ 첨단산업지구 내 북쪽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 부지에 새로운 계획 적용 및 기업 유치. 이로 인한 6만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대 1만 7,000개의 새로운 주택 및 1만 2,000개의 보호 주택 건설 예상
- 베소스(Besos)강 유역: 새로운 친환경 구역 '라메르세데스(LaMercedes)'를 건설하는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베소스강 유역의 경제를 재활성화
- 자유 무역 지역(Zona Franca) - 프랏 베르멜의 마리나(Marina del Prat Vermell) 지역: 4차 산업 및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8,000~1만 개의 일자리와 1만 2,000개의 주택 건설 예상

- 세 번째 축: 재능과 과학
 - ‘지식의 성채’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통한 바르셀로나의 씨우파데야(Ciudadella) 공원 내 지식 허브 조성 프로젝트를 자우마 콜보니 시장 임기 내에 완료하여 바르셀로나 슈퍼 컴퓨팅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 네 번째 축: 건강
 -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의 남쪽 지역인 에스플루게스 데 요브레갓(Esplugues de llobregat)에 새로운 바르셀로나의 핵심 의료시설인 오스피탈 클리닉(Hospital Clinic) 병원 건설. 또한 이 지역으로 지하철을 확장하여 새로 건설되는 오스피탈 클리닉 병원을 홍보. 그 외에도 델 마르 병원(Hospital del Mar)과 발 데브론 대학 병원(Vall d'Hebron University Hospital)의 확장 계획을 진행
- 다섯 번째 축: 스포츠
 - 2024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규모의 매우 중요한 요트 대회인 아메리카컵(Copa America) 대회는 바르셀로나에 경제적 영향(12억 유로의 수익 및 1만 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줄 것. 그뿐 아니라 올림픽 항구, 구항구, 포럼 항구, 블루 파빌리온 등에 해당 대회를 준비하며 적용된 변화 덕분에 바다를 향해 새롭게 개방된 바르셀로나의 도시 변화 형태로 도시에 유산을 남길 것
- 여섯 번째 축: 문화
 - 바르셀로나 시내 중심가의 오래된 기차역인 프란시아(Franca) 기차역 옆 중앙도서관 건설을 비롯하여 2030년까지 도시 전역에 총 45개의 도서관이 위치할 것이며, 이는 현 수치에서 30% 증가한 수치이고, 이러한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들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 예정

역사적 규모의 도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 투자 계획 PIM 2023-2027

- 공공 투자 계획 PIM(Plan de inversiones Municipal) 2023-2027 목적과 규모
 - 지방자치단체가 역사적 규모의 도시 변화 주체이자 원동력이 되기 위해 수립한 공공 투자 계획. 공공 공간 관련 10억 유로, 근접 시설 관련 800만 유로를 비롯한 총 28억 2,900만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
- 우선순위 조치
 - 에이삼플레 지역 32개 도시 블록 내부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복구하고 전기 충전소 3,000개 설치 탈탄소화 및 친환경적 가치가 최우선
 - 양질의 공공 공간을 위한 투자
 - 시립 도서관과 어린이집, 스포츠센터, 시장 등 지역의 공공시설 리모델링, 오랫동안

방치된 아르나우 극장 복구 등 지역 시설에 대한 지원

- 대도시 중 최초로 임대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고, 임대료를 더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추가 법안을 검토함으로써 주택 문제 해결위해 저렴한 주택 제공 토대 마련
- 특징
 - 2024년 예산과 관련하여 자우마 콜보니 시장은 바르셀로나가 역사상 가장 높은 예산, 가장 야심 찬 예산, 가장 사회적인 예산, 가장 큰 투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

<https://ajuntament.barcelona.cat/alcaldede/ca/noticias/lo-mas-destacado-del-encuentro-anual-el-alcaldede-responde-1375532>

<https://elpais.com/espana/catalunya/2024-02-29/jaume-collboni-defiende-que-barcelona-despliega-la-maxima-inversion-publica-desde-los-juegos-olimpicos.html#>

<https://www.elperiodico.com/es/mas-barcelona/20240304/jaume-collboni-alcaldede-responde-98995372>

<https://ajuntament.barcelona.cat/premsa/2024/02/29/barcelona-impulsa-la-transformacio-del-segle-amb-una-inversio-publica-de-mes-de-10-600me-fins-el-2035/>

<https://www.elperiodico.com/es/barcelona/20240229/collboni-lluvia-millones-obra-publica-barcelona-2035-98836023>

<https://www.escolasert.com/es/blog/proyecto-mercedes-barcelona>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사회적 협력과 민주주의에 강한 빈

오스트리아 빈 / 미샤엘 루드비히 시장 겸 주지사 / 신년사

빈의 시장 겸 주지사인 미샤엘 루드비히(Michael Ludwig)는 20분가량의 신년 대담회에서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협력과 민주주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그 외에도 빈 시민의 높은 삶의 수준에 대해 언급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시의 지원 정책을 소개함

2023년 오스트리아 빈이 마주한 위기와 대응

-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에너지 시장의 위기로 이어져 오스트리아도 타격을 입음. 이에 오스트리아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었고 가계의 부담이 더해졌으며 인플레이션이 심화됨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하여 빈은 여러 대응책을 도입
 - 빈은 연방 정부에 에너지 시장 개입 및 세입자에게 유리한 월세 규정을 촉구
 - 빈은 에너지 보조금과 더불어 공동 부담금 제동 장치를 마련함. 더불어 빈 주택 보너스 제도를 통해 임대 계약과 관계없이 모든 세입자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65만 가구에 재정적으로 지원
- 사회적 급진화와 분열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빈은 당파를 초월하여 시민의 이익을 위한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 구조 측면에서 안정을 추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국제적 위상을 가진 도시 빈

- 빈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에 선정되었으며, 더불어 시민 삶의 질이 높은 도시에 관한 통계에서 10년 동안 1위를 차지(「모노클(Monocle)」과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조사). 그 외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상을 수상했으며, 유기농 제품 생산을 인정받아 유럽의 유기농 수도로도 자리매김함
- 2024년 가을부터 2025년 가을까지 유럽의 민주주의 수도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 내 다양한 민주적인 시민사회 기관 및 NGO와 도시계획부터 기후보호 조치 실행까지 협력할 예정

-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 세대를 넘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음

2024년 선거의 해를 맞이하며 투표의 정치적 의미를 되새김

- 세계 인구의 절반이 투표하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정치 문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안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움
- 오스트리아는 2개 주에서 선거가 있으며, 노동자위원회 선거와 6월 9일 EU선거는 빈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 선거를 통해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이 필요

전일 교육과 이중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

-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인플레이션과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비즈니스가 압박받아 노동시장에 변화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 교육이 대응책으로 필요함
- 빈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 가도록 무료 유치원을 최초로 실행한 연방 주로, 2020년부터는 무료 종일제 학교를 열어서 청소년들이 수업도 받고 여가 활동도 할 수 있게 지원
- 이번 학기부터는 종일제 학교에서 점심 무료 제공 시작. 이는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하루에 한 번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
- 빈은 독일어권에서 중요한 대학 중심지로, 약 20만 명의 학생이 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 따라서 빈은 대학 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
- 직업 훈련과 일반적인 학업을 결합한 이중 교육 시스템 강조
 - 유럽 국가 중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잘 발전된 견습생 제도(이중 교육 시스템)는 여러 유럽 국가가 부러워하는 제도
 - 이중 교육 시스템을 통해 미래에 필요한 직업 인력을 마련. 견습생들이 기술을 잘 배우고 좋은 임금을 받을 만한 역량을 키워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줌
 - 예를 들어, 기후 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연간 축구 경기장 100개 규모의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태양광 시스템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 따라서 교육 기관에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특별 교육 과정을 마련함
 - 젊은이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이를 위해 도나우슈타트(Donaustadt)의 다뉴브강 근처에 크고 현대적인 직업 학교를 건설할 계획

오늘날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빈

- 빈은 미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음
 - 특히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 간소화와 의료 및 건강 서비스 등의 기회에 대해 논의 중임. 더불어 가짜 뉴스가 퍼지는 등 부정적인 미디어 상황도 주요 과제로 삼음
- 빈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부족한 게 현실
 - 행정 등 일부 분야에서는 디지털화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는 것이 필요
- 고령화 때문에 노인들의 치료와 간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 더불어 현재 간호 인력 부족 문제로 의료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필요함. 간호 직업을 지원하기 위해 빈은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빈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견습 교육 시간을 지원하고자 교육 보조금 제공. 빈에서 한 달에 400유로를 견습생들에게 지급하며, 현재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아 최대 600유로까지 인상함
 - 지원자가 늘어나 교육 장소가 부족해지자 교육 장소 수를 두 배 이상 늘려 4,500개가 되었고, 더 많은 교육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빈응용과학대학에 특별 증축 자금을 지원
 - 이들이 교육받아 요양 시설에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2년 정도 걸림. 그 사이에 인력 보충을 위해 다른 직종에서 전직하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
 - 더불어 병원 및 클리닉에서 일하는 전문직들을 위해 빈 정부와 노동조합은 일요일 초과 근무에 대해 더 높게 가치를 평가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https://youtu.be/1-d7_URkbCA?si=rKonZUDPtpJl7_2L

<https://www.tv21.at/l/neujahrgesprache-2024-burgermeister-michael-ludwig/>

홍 남 명 통신원, hongnamyoung@gmail.com

도시의 결속력에 대한 당부

독일 베를린 / 카이 베그너 시장 / 신년사

베를린의 카이 베그너(Kai Wegner) 시장은 2023년 베를린 재선거를 통해 뽑혔으며, 2023년 베를린이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2024년에는 시민과 함께 이겨 나갈 것을 강조

새로운 베를린 시장 당선 배경

- 2021년 9월 지방선거에서 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이 승리했으나, 당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투표용지 배달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
 -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 재 실시 결정을 내려, 2023년 4월 27일 재선거 실시
 - 기독교 민주연합당(CDU, 이하 기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으며 이는 22년간 베를린에서 사민당이 제1당이었던 기록을 깬 것
- 기민당은 사민당과 연립 정부를 꾸렸으며, 기민당 소속 카이 베그너(Kai Wegner)가 시장으로 당선됨

신년 발표 개요

- 2024년 베그너 시장의 신년사 발표는 구체적인 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을 시사하지 않음. 베그너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베를린 시민이 함께 뭉쳐 최선을 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함

작년 한 해 회고

- 2023년은 베를린에 위기와 도전이 많았던 해로, 도시의 결속력이 중요함을 확인함
- 베를린은 단순한 도시 그 이상으로, 누군가의 집이자 삶의 방식임. 많은 이들이 베를린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자 하며 다양한 삶의 방향성과 욕구를 보임. 중요한 것은 개인의 출신보다 방향성임을 강조

베를린 시민에게 당부

- 1) 공통의 규칙에 따라 함께 생활하고, 2) 노력을 가치 있게 보며 동시에 약자를 돕고, 3) 서로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서로를 돌보며, 4) 증오와 분열, 선동 확산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낼 때 시민들 사이의 차이점이 있어도 함께할 수 있음
- 베를린은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옴. 베를린 시민들은 열정, 헌신, 호기심, 추진력이 있음. 함께하면 방향을 설정하고 서로 지지하며 용기와 낙관론을 이끌 수 있음. 베를린에게는 시민이 필요함을 강조
 - 베를린의 다양한 구성원들(자원봉사단체, 정규직, 클럽, 직장, 학교, 사무실, 구호단체, 돌봄기관, 소방대, 경찰 등)이 베를린을 만들기에, 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
- 2024년을 기회의 해로 만들기 위해 개개인의 낙관적인 자세 요청. 큰 도전에 직면했지만 시민들이 함께 결속하면 극복해 낼 수 있음
- 도시의 다양성을 기뻐하고, 베를린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23/pressemitteilung.1400399.php>

홍남명 통신원, hongnamyoung@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75호

발행인 오균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4년 6월 10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송도숙(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이 보고서의 내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